

보도자료

세계사적 소명을 실천하는 창의적 지식 공동체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배포일	2017. 8. 29.(화)	홍보담당	기획처 홍보팀(02-880-5054, 9072)
담당부서	행사진행: 총무과 학위수여: 학사과	문의	총무과(880-5092) 학사과(880-5033)

서울대학교 제71회 후기 학위수여식

서울대학교는 제71회 후기 학위수여식을 2017년 8월 29일(화) 오전 10시 30분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학사 838명, 석사 1,023명, 박사 607명, 총 2,468명에게 학위를 수여하였다.

성낙인 총장은 학위수여식사에서 “성공에의 강박을 벗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을 도모하는 삶의 태도로 ‘문제구성능력’을 키워나간다면 어떠한 큰 변화의 파도가 몰아치더라도 쉽게 휩쓸려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성총장은 “새로운 발길을 내딛는 그곳에서 환영받는 선물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마치 나무가 묵묵히 자랐을 뿐인데 어느덧 튼실한 재목이 되어 주위에 많은 도움이 되듯이,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아름답드리나무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학위수여식사 첨부1>

학위수여식 축사 연사는 서정화 총동창회장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회과학자로 왕성한 교육 및 연구활동을 해오며 실천적 지성을 상징해온 사회학과 송호근 교수(61)가 맡았다. 서정화 총동창회장은 창의적 지성과 공동체를 설득할 수 있는 겸손을, 송호근 교수는 예측 불가능한 미래 시대에 대학시절 배양한 ‘마음의 양식’을 더욱 키워나갈 것 등을 각각 축사에서 강조하였다. <축사 자료 첨부2, 3>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서도 학업에 매진하고 사회공헌 협동조합 설립 등 다양한 공헌활동을 실천해온 남정훈 학생(27, 사회교육과)이 졸업생 대표 연설을 맡았다. <대표 연설문 첨부4> 전체 학위수여식 행사 후 각 단과대학 및 전문대학원별로 학위수여식을 진행하였다.

주요 식순

- 학사보고, 학위수여식사(총장), 축사(서정화 총동창회장),
졸업생 대표 연설(남정훈, 사회교육과), 축사(사회대 사회학과 송호근 교수),
학위수여, 상장수여, 교가제창

* 붙임

- 학위수여식사(총장), 축사(서정화 총동창회장, 송호근 교수),
졸업생 대표 연설문(사회교육과 남정훈)

【붙임1: 총장 학위수여식사】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의 값지고 빛나는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교학상장의 기쁨을 함께 누리셨을 교수님들, 항상 도움이 되고자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을 직원 선생님들,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주신 서정화 동창회장님을 비롯한 동문님들, 서울대학교를 사랑하는 후원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누구보다도 사랑으로 힘이 되어주신 부모님과 가족 분들께 더없는 감사와 축하를 표합니다.

아름드리나무가 될 졸업생 여러분,

서울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여러분은 우리 사회가 서울대학교에 보내준 선물이었습니다. 이처럼 소중한 여러분이 각고면려(刻苦勉勵)의 노력 끝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영예로운 졸업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와 성취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서울대학교는 뿌듯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우리 사회에 더 큰 선물로 되돌려드리고자 합니다.

졸업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끝맺음입니다. 부디 새로운 발길을 내딛는 그곳에서 환영받는 선물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애써 남을 도와주며 살자는 제안이 아닙니다. 나의 삶에 충실했을 뿐인데, 그러한 내 삶이 타인에게 도움이 되고 응원이 되는 삶, 마치 나무가 묵묵히 자랐을 뿐인데, 어느덧 튼실한 재목이 되어 주위에 많은 도움이 되듯이,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아름드리나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지성과 함께 따뜻한 가슴을 지닌 역량 있는 인재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절, 비교적 짧은 기간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룩해내는 저력을 발휘하였습니다. 이는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자랑스러운 성취입니다. 이제 그 저력을 바탕으로 우리는 21세기 세계 문명을 선도하며,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선(善)한 의지와 튼실한 역량을 지닌 인재, 곧 ‘선(善)한 인재’가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바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지성과 함께 공공성으로 무장된 따뜻한 가슴을 지닌 선(善)한 인재입니다.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은 또한 평화와 인문이 삶의 기본이 되는 삶의 구현으로 ‘선(善)한 사람들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주역입니다.

평화 통일과 동아시아의 항구적 평화 실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업입니다. 이는 결코 ‘나’의 삶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인권과 자유가 보장되는 평화로운 세상의 실현은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서울대학교는 통일평화인권대학원과 인권연구소를 설립하여 새 시대가 요구하는 통일·평화·인권문제를 선도적으로 연구하고 교육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인간다운 삶의 영위가 그 무엇에도 앞서는 제일의 가치로서 당연시되는 선진적 ‘인문사회’를 구현하여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상존하는 온갖 차별과 증오, 사회적 갈등과 분열 등을 이성적으로 해소해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성장과 성숙에 걸림돌이 되어 온 부조리와 불의, 폭력으로부터 ‘나’의 삶을, 또 ‘우리’의 삶을 한층 안정적으로 보전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상적 삶에서 늘 평화를 희구하고 실현해 나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평화와 인문이 기본이 되는 삶을 활짝 열어 간다면 우리들이 지향하는 ‘선(善)한 사람들의 공동체’에 보다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의 선두에 여러분이 서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졸업생 여러분,

우리는 벌써 ‘빛의 속도로 연결되어 있고 고도로 지능화되어 있는’ 디지털 혁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사물 인터넷, 모바일, 인공지능 등 새로운 디지털 기술의 빠른 전파로 이에 의존하는 정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고유한 이성과 감성, 상상, 직관 등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기술적 재현이 시시각각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정신, 심리와 생명 현상도 공학적으로 처리되면서 인간의 기계화와 기계의 인간화가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습니다. ‘초(超) 연결(hyper-connection)’, ‘포스트휴먼(posthuman)’으로 대변되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시대’라는 파도와 본격적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파도는 우리가 타고 가야 할 물결입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를 막아서는 물결이 아닙니다. 물론 파도가 클수록 변화도 클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는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창의적이고 자율적이며 협업적이라면, 우리는 너끈히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경쾌하게 가로지르면서, 우리 자신을 제고해갈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기회를 통해 얻은 성공적 삶을 강조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성공하는 삶만이 유일하게 좋은 삶은 아닙니다. 사람은 ‘무(無) 오류’의 신이 아닙니다. 이는 살아가면서 항상 성공만 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삶’이 한층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며 소중하고 값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오로지 성공만을 위하여 늘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는 강박을 떼어낼 수 있기에 더욱 더 그러합니다.

최선을 추구하는 삶은 때로는 독선적이고 유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기 신념과 목표를 앞세우다 보면 본의 아니게 타인을 억압하고 배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보다는 ‘최적(最適)’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신이 몸담고 있는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련된 모두가 이롭게 되는 결과를 빚어낼 수 있게 됩니다. 유교 경전인 『중용(中庸)』에서는 이를 가리켜 ‘시중(時中)’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때그때 조성되는 현장에 충실하면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지향이 바로 시중의 태도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요구되는 창의성을 키우는 데 무척 유용합니다. 미래 사회에서는 ‘문제해결능력’에 기초한 창의성이 아니라 ‘문제구성능력’에 기초한 창의성이 요구됩니다. 문제구성능력은 주어진 문제를 잘 푸는 능력이나 기존 매뉴얼대로 일을 잘 처리하는 능력 등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층 상위의 능력으로, 이를테면 새로운 문제를 개발할 줄 아는 능력, 기존 문제처리 매뉴얼을 갱신해갈 줄 아는 능력 등을 가리킵니다. 또한 문제구성능력은,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언젠가 문제될 수 있는 바를 미연에 찾아내고, 그 적절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줄 아는 역량이기도 합니다. 송(宋)대의 대문호 소동파(蘇東坡)는 “세상 환난 가운데 가장 처리하기 어려운 것이, 겉으론 무사태평이지만 이면에는 크나큰 우환이 잠재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 변고를 방관하다가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를까 두렵다”(「조조론(晁錯論)」)라고 고백하며, 현상을 통해 내면을 통찰하고, 현재를 통해 미래를 대비할 줄 알아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공에의 강박을 벗고 많은 이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을 도모하는 삶의 태도로 ‘문제구성능력’을 키워 나간다면 어떠한 큰 변화의 파도가 내 앞에 몰아치더라도 쉽게 휩쓸려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물결을 타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당당하고 멋진 졸업생 여러분,

끝으로 장차 여러분이 서 있게 될 곳에서, 주어진 삶의 여건과 또 일상이 펼쳐지는 삶터를 늘 치열하게 읽어가기를 당부합니다. 삶은 읽기를 요하는 텍스트의 끊임없는 연쇄입니다. 그 텍스트를 조리 있고 의미 깊게 읽어낸다면, 그만큼 여러분의 삶은 이지적이며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알고 있는 삶보다는 좋아하는 삶이, 좋아하는 삶보다는 즐기는 삶” (『논어』)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삶이란 텍스트를 꾸준히 읽어가는 데 필요한 동력과 역량은 아는 데서가 아니라 좋아하는 데서, 그보다는 즐기는 데서 더욱 더 잘 추동되고 발휘되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삶을 영위하며, 우리 모두에게 선물 같은 삶을 펼쳐내기를 베풀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더없이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8월 29일

서울대학교 총장 성낙인

【붙임2: 축사1 총동창회장】

존경하는 성낙인 총장님과 모교의 교직원 여러분.
학생들을 보살피고 가르쳐 오늘의 기쁨에 함께 이르신 부모님과 친지 여러분.
수 년 간의 험난한 학업의 길을 마치고 이제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으로서 세상에 나가게 된 졸업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대학교가 이 땅에서 첫 개학의 문을 연 지 122년, 국립서울대학교로 통합개교한 지 7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마도 우리 역사 속에서 가장 큰 격랑이 흘러갔을 그 시간 동안, 많은 서울대인들이 배출되어 국가와 민족을 위한 지도적 지성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에 자리한 후배님들 또한 그 대열의 일원이 되어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나간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감개무량합니다.

구한말 국망의 위기 속에서 우리 선조들이 서울대학교의 전신에 해당하는 근대적 고등교육기관들을 설립했을 때, 이는 어떤 이들에게 영달의 기회를 제공해주기 위함만은 아니었습니다. 국운의 쇠락에 직면하여 민족의 미래를 위한 씨앗을 심는 심정으로 학교들이 세워졌습니다. 그곳에서 수학한 젊은이들은 혹은 민족중흥의 열망을 품고 殖産과 研究에 힘썼으며, 혹은 민족독립의 기치를 들며 목숨을 걸고 국내외를 누볐습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 서울대학교는 명실상부한 국가 최고의 교육기관이 되어 사회를 이끌 인재들을 양성했고 국가 도약의 발판이 될 지성을 창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민족은 서울대학교에 존중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서울대인들은 국가를 향한 책임감 속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왔습니다. 이처럼 서울대학교는 민족공동체와 함께 성장해왔으며, 그 전통과 가치는 지금도 학풍에 면면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서울대인의 역사 속에서 기려야 할 가치들을 강조해왔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공동체를 위해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적 지성입니다. 특히 리더의 지성이란 공동체의 실물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지식과, 공동체의 역사적 의의를 규명하여 미래를 향한 비전을 제시하고 구성원을 설득해낼 수 있는 통찰을 포괄합니다. 그리고 이 둘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유물론적 과학주의와, 2차 산업혁명은 근대주의와, 3차 산업혁명은 탈근대주의와 함께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각각의 혁명을 선도해낸 것은 바로 물질과 사상의 발전을 함께 선점하여 독자적인 사회상을 창출한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이 된 지금, 세상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단초는 이미 많은 이들이 언급해왔습니다. 그러나 기술의 발달과 사상의 발전이 통합되어 나타날 시대의 실체는 여전히 미답지입니다. 최고의 두뇌들이 그 실체를 선점하기 위해 각축하고 있으며 그 경쟁의 결과가 바로 새로운 국제질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그 경쟁에 합류할 인재들입니다.

그리고 지성만큼, 아니 지성보다도 더 우리가 새겨야 할 덕목은 바로 공동체를 설득할 수 있는 겸손입니다. 모든 개인의 성취는 그가 속한 공동체의 지지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세계와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은 필연적으로 공동체와 역사에 대한 겸손함으로 귀결됩니다. 지성인은 바로 그 겸손함을 통해 책임감과 연대감을 체득하여, 공동체와 함께 더 위대한 성취를 이뤄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놀라게 할 혁신적인 지성도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납득시키지 못하면 헛된 공론으로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중에 대한 설득력은, 그 지식의 혁신성이나 정합성 못지않게, 지식을 발휘하는 주체가 살아있는 인격체로서 얼마나 겸손함을 보였는가에 좌우됩니다. 최근 우리는, 국가를 총괄하는 지성들이 국민을 설득하지 못했을 때 국가 전체가 얼마나 불행해 지는지를 목격한 바 있습니다. 지도적 지성인들에게 겸손함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지성과 겸손이 합일되었을 때에 지성인의 삶은 봉사(奉仕)를 통해 위대함의 대열에 이르게 됩니다. 자유주의가 그 난숙기(爛熟期)를 이미 지나버린 지금,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논하는 것이 사조(思潮)에 맞지 않는 듯합니다. 게다가 만성적인 불경기와 사회혼란에 지쳐버린 청년세대들에게는 더더욱 생경할 것임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역량이 최대로 발휘되어 가장 큰 보람을 끌어내는 것은 바로 공동체와의 연대를 통해서이며, 역사는 바로 그러한 창조적 소수와 대중이 연결되었을 때에 비로소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시대마다 나뉠의 어려움 속에서 서울대인들은 지도적 지성인으로서 대중과 함께 호흡하며 역사를 만들어왔습니다. 부족하나마 그 역사를 체험한 한 사람의 선배로서, 그 전통을 함께 계승해나갈 것을 후배 여러분들에게 충심으로 권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수 년 동안 축적한 자신감, 동문들과 함께 쌓은 우정과 교분, 미지의 세상을 목전에 두고 가질 수밖에 없는 두려움까지 모두 하나가 되어 여러분의 장도(壯途)를 힘 있게 시작하게 만들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후배님들의 졸업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여러분의 앞날에 크나큰 성취와 행복이 함께 할 것을 기원합니다.

【붙임3: 축사2 송호근 교수】

“그, 마음의 양식”

졸업생 여러분, 귀한 학위를 취득하신 석사, 박사 여러분들께 심심한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늙름한 졸업가운을 입은 멋진 인재가 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정성과 보살핌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묵묵하게 대학을 이끌어주시는 총장님, 학장님, 보직교수님들,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동창회장님, 이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무엇보다, 학부모 여러분, 이제 짐을 내려 놓으셔도 좋겠습니다. 꼭 붙잡았던 그 손을 놓으셔도 될 만큼 이 자리에 참석한 자녀들은 충분한 역량을 키웠습니다. 이 졸업식은 학부모에게는 자녀 뒷바라지를 완수했음을 공인하는 수료식이고, 졸업생에게는 학교와 가정의 등지를 떠나 홀로 선다는 것을 약속하는 선서식입니다.

그런 엄숙하고 영광스런 이 자리에 저를 초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교수이자 선배로서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저는 관악캠퍼스가 문을 연 1975년에 입학해서 지금까지 42년 동안 이곳에서 인생을 보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지요.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기억이 항상 저를 일깨웠습니다. 저를 질책하고 성원하고 바로 세우는 그 긴장의 시원(始原)이 바로 여기 이 캠퍼스에서 비롯되었으니까요. 제 인생의 중요한 열쇠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마음의 양식”에 관한 얘기입니다. 마음의 양식, 여러분이 지난 몇 년 동안 이 캠퍼스에서 배양한 양식(良識)이자, 사회 전선에 나선 여러분들의 마음을 단련할 정신적 양식(糧食)의 의미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가끔 캠퍼스를 산책하다 보면 대학시절의 흔적이 여기 저기 발견됩니다. 모두 풋풋한 기억들이죠. 치기어린 장면들도 떠오르고 열정, 고뇌, 걱정, 시대적 고민이 영켜 있습니다. 혼자 남아 이런 저런 상념에 잠겼던 강의실, 친구들과 시국 논쟁을 벌이던 학과방, 도서관, 시인이 된 친구와 문학을 얘기하던 자하연, 푸념을 묵묵히 들어주시던 교수, 봉천동 술집 등이 떠오릅니다. 온갖 질문들을 다 했지요. 신(神)은 존재하는가? 한국사회는 어떻게 궁핍에서 벗어날까? 대학은 권력 앞에 기어이 무력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대책 없는 큰 질문들을 수없이 해댔습니다.

또, 사회과학 논문은 왜 시적 언어로 쓰지 못하는가? 왜 꼭 각주를 달아야 하나? 요즘 같아선 표절위험이 있는 위험천만한 질문이죠. 어느 순간엔 책 사보는 게 자존심이 무척 상했지요. 책을 사보게 하려고 일찍이 책을 썼는데, 거의 안 팔리더군요. 아무튼, 제가 지금

껏 보관하고 있는 대학시절 노트에 그런 질문들이 가득합니다. 돌이켜 보면 이후 인생은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여행이었습니다. 대학시절 친구들과 나눈 대화, 지적 노력, 시대고민이 인생의 논리와 윤리를 지켜주는 중추신경이자 등불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동반할 원천적인 ‘마음의 양식(良識)’입니다. 영국대학이 수여하는 주거증명서(residential certificate)의 의미가 그것이지요.

오늘 캠퍼스를 떠나면서 여러분이 가꿔온 그 ‘마음의 양식’을 정신의 백팩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동행할 당신의 자산입니다. 외롭고 고독할 때, 불의와 직면했을 때, 어떤 장애에 막힐 때, 딜레마에 부딪힐 때, 그걸 꺼내보세요. 여러분들의 사고와 행동을 감시하고, 규제하고, 격려하고, 응원할 겁니다. 명확한 답은 없지만, 아마 고뇌의 방향을 일러줄 겁니다. 사고의 나침반이라 할까요? 그걸 갖고 있는 여러분들은 마음의 부자이죠.

그런데 ‘나의 시대’와 ‘여러분의 시대’는 차이가 있습니다. 나의 시대는 예견이 가능했습니다. 사회발전의 진로가 보였으니깐요. 빈손이었지만, 자신만만했습니다. 지성의 용광로에 다 녹일 수 있었으니깐요. 과학기술도, 생산체제도, 사람들의 삶의 양식도 예측 가능했습니다. 변한 것은 편리함, 커뮤니케이션, 사회관계, 그런 것입니다. 그 땐 글을 원고지로 썼습니다. 지금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씁니다만, 쓴다는 행위는 달라지지 않았지요. 앞으로 쓰는 행위가 어떻게 변할까? AI가 뇌파를 받아 적겠지요. 아니 쓰기보다는 뇌 속의 동영상을 촬영하겠지요. 가상현실, 증강현실이 오히려 현실이 되는 세계, 빅데이터, AI, 바이오X, IoT가 융합해 기상천외의 현실을 만들어 놓겠지요. 극소미세혁명이 ‘거대한 변혁’을 몰고 오는 시대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스펡글러, 토인비의 역사관이 여전히 통용될까요? 헤겔과 마르크스가 논의될까요? 공맹사상이나 퇴계, 율곡, 정다산이 논의될까요? 거시적 사상이 극소미세 혁명의 행진을 제어할 수 있을까요? 20세기 지적 모험은 문명의 보편성을 내세워 과학기술을 통제하려 했습니다만, 이제 과학기술은 문명사적 문법을 이탈합니다. 21세기 지적 모험은 극소미세혁명의 문법에 굴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로봇에 국적을 줘야 할지, 주민등록증을 같이 써야 할지의 문제가 발생하겠지요. 감성코드가 장착된 로봇이 연모하는 사람 집 앞에서 ‘창문을 열어다오’를 열창하면 체포해야할지를 고민하는 시대가 열리겠지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 시대, 캠퍼스 밖은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미시혁명 물결이 드높습니다. 과학자, 미래학자가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은 모든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

으로 만드는 불확실성 시대를 예고합니다. 제가 비교적 상상력의 경계 ‘내’에서 살았다면, 여러분들은 그 경계 ‘밖’의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호기심을 자극하는 신비하고 불안한 세계지요.

그럼에도 저는 믿는 바가 있습니다. 캠퍼스에서 가졌던 그 마음의 양식, 논리와 윤리, 이성과 감성이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을 함께할 영원한 동반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아(我)’를 정립하는 비망록(備忘錄)입니다. 50년 후에도 서울대학은 이곳에 그대로 있을 겁니다. 수 백 년 후에도 그럴 겁니다. 종교와 대학은 지난 십 여 세기 소멸되지 않은 인류사회의 근본적인 제도입니다. 우주시대, 혹시 서울대 화성(Mars) 분교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관악에서 여러분들이 피워낸 ‘마음의 양식’은 그대로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별자리처럼 반짝일 겁니다.

‘별자리를 보고 여행하던 시대는 행복했다’. 독일의 사회학자 게오르그 루카치(Georg Lukács)가 꼭 백 년 전에 쓴 구절입니다. 혁명과 반혁명이 반복되던 당시 별자리가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루카치는 인식공간에 자신의 새로운 별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거대한 반역의 물결 속에 그 별자리는 또 소멸하기에 이르렀는데, 루카치가 애써 배양한 ‘마음의 양식’ 만은 힘찼습니다. 그의 모교 헝가리 부다페스트대학 시절 방황과 고뇌의 산물입니다. 재일동포 2세이자 동경대 교수를 지낸 강상중 교수가 ‘마음의 힘’을 썼습니다. 자이니치(재일동포 2세)의 운명과 아들의 죽음이 겹친 그 절망의 협곡을 빠져나와야 했었지요. 제가 몇 년 전 만났을 때 그런 상태였습니다. 미래로 나가기 위해 역사를 더듬는다고 했습니다. 토마스만(Thomas Mann)과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의 주인공을 회생시켜 황폐했던 전후의 삶을 살아가는 가상의 얘기 속에서 ‘마음의 실질’(實質)을 키워냈습니다. 그는 학자, 문필가로서 후반생을 비장하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비하고 불안한 미래와 현실이 접속하는 최전선에 서 있을 겁니다. 선배들이 그러했지요. 개인의 영달보다는 시대를 고민하는 그 전선 말입니다. 서울대 입학과 더불어 부여받았던 운명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미래의 전선, 그렇기에 이 캠퍼스에서 배양한 ‘마음의 양식’을 더욱 키워나가야 합니다. 이 캠퍼스를 떠나면 여행이 시작되지요, 그런데 길은 흐릿합니다. 마음의 백팩에 채긴 여러분의 스토리에 마음의 실질을 키울 원천적 질료가 들어 있습니다. 극소미세혁명의 시대에도 그 별자리는 반짝일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캠퍼스를 걸어 나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회현실과의 대면, 그리고 21세기 지적 모험이 시작된 것이죠. 조선 말, 유길준 선생이 『서유견문』(西遊見聞)을 썼습니다. 27살에 미국에 유학하고 돌아온 후 34살 때였어요. 미국 보스톤 근교 피바디 박물관에서 선생의 흔적을 봤습니다. 조선 관복과 가방, 유품이 진열돼 있더군요. 27살 후진국 청년인 제가 물었습니다.

-“어떤 고뇌가 여기까지 오게 했나요?”

학위를 받고 돌아와 검단산 유길준선생의 묘소에 갔습니다. 34살 때였지요. 제가 다시 물었어요.

-“답을 찾으셨는지요?”

제가 이 캠퍼스에서 보낸 42년이 그런 물음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정신의 백팩에 담은 그 ‘마음의 양식’은 극소미세혁명의 신비하고 불안한 파도를 뚫고 나갈 등불입니다. 세계화 시대에 ‘진정한 아(我)’를 생성하는 비망록입니다.

일제강점기, 독일어 소설 『압록강은 흐른다』(Der Yalu Fließt)를 쓴 이미륵선생이 있었습니다. 1919년 3.1운동에 연루돼 할 수 없이 조선을 떠나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고향 마을 어귀까지 아들을 배웅했습니다. 옷가지, 서류, 회중시계가 든 버드나무 상자를 건네주며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너는 자주 낙심하기는 하였으나 그래도 충실히 너의 길을 걸어왔다. 너를 믿고 있단다. 너는 결국 국경을 넘을 것이고, 유럽에 도착할 것이다. 슬퍼하지 마라. 너는 나와 가족에게 많은 기쁨을 주었다.

자, 이제 홀로 가거라!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교수와 학부모님께 많은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렇듯,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기쁨을 줄 것을 믿습니다. 홀로 가도록, 새로운 길을 개척하도록, 믿음을 보내며 손을 놓습니다.

사회 전선으로, 21세기 지적 모험의 바다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앞날에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붙임4: 졸업생 대표 연설문】

남정훈(사회교육과)

제71회 후기 학위수여식을 맞아 자리를 빛내주신 존경하는 총장님 이하 교직원 및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부족함이 많음에도 2468명의 졸업생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대학생활의 마침표를 찍는 오늘, 시계를 돌려 대학생으로서 첫 걸음을 내딛던 7년 전을 떠올려봅니다. 서로에 대한 격려와 미래에 대한 기대가 가득했던 입학식. 그 화려한 순간, 저의 이면에는 오랜 실직으로 우울증이라는 마음의 병을 앓고 한 손의 감각마저 잃어버리신 아버지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 홀로 생계를 책임지시던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내일을 어떠한 모습으로 마주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시작했던 대학 생활. 서울대학교 학생으로서 요청되던 사회에 대한 책임감은 제 몸 하나 가누기 벅찬 저와 우리 가족에게 공허한 울림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대학 생활에 마침표를 찍는 이 순간, 저는 자신조차 알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이 이 곳 서울대학교에서 발견했음을 깨닫습니다. 지난 대학생활동안 저는 글로벌 사회공헌 비즈니스 동아리 인액터스 회장으로서 시각장애인 안마사, 한부모여성, 소상공인 등 사회 소외계층들과 함께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실행했습니다.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100명이 넘는 사회소외계층들과 함께 3억 5천만원 가량의 신규 수익을 창출한 결과, 지난 2015년에는 자랑스런 팀원들과 함께 한국을 대표하여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사회공헌 활동들을 소개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이후 대한민국 인재상이라는 과분한 상도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결코 처음부터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에 관심을 갖는 것이 사치라 생각하던 제가 그 간 사회와 공감하고 행동하기 위해 노력해온 이유는 단 한 가지, 이 곳 서울대학교에서 끊임없이 나의 부족한 모습을 부끄럽도록 만든 다양한 자극들을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매 학기마다 캠퍼스 가득 붙여진 봉사 동아리 포스터에서부터 장애를 가졌음에도 사회적 기업을 창업했거나,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소외계층 아동들을 위해 멘토링 활동에 나서고 있는 수 많은 학우님들의 모습들까지, 이 곳 서울대학교에는 새로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자극이 있었습니다. 매 순간 내가 서울대학교에서 마주한 수많은 자극들은 나로 하여금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보다 가진 것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도록, 그리고 사회에 대해 보다 따뜻한 시선을 가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연단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 벅찰 만큼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곳에서 이토록 소중한 경험을 여러

분과 나눌 수 있는 것은 그간 서울대학교라는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준 멋진 모습들 덕분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에서 항상 많은 것을 배우고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며,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졸업을 앞둔 지금, 이제 저는 세상에 긍정적인 자극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또 다른 자신의 모습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 곳 서울대학교에서 전공으로서 배웠던 교육학적 지식, 사회소외계층들과 호흡하며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즈니스에 대해 고민했던 경험, 그리고 매 순간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배우게 된 열정들을 바탕으로 저는 교육 분야에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문제를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해결해나가는 기업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저의 꿈은 부족한 제 자신을 바꾸었던 여러분들의 모습들처럼 사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는 데 필요한 새로운 자극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졸업생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학교를 벗어나 사회인으로 새롭게 발돋움 하게 됩니다. 익숙한 캠퍼스와 작별하는 이 순간 이후, 많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 때론 벼랑 끝에 매달린 사람 마냥 위태로운 하루를 보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주십시오. 여러분의 매 순간의 노력과 열정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긍정적인 자극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벼랑 끝에 매달린 듯한 위태로움 속에도 벼랑에서 떨어져본 사람만이 비로소 자신의 등에 달린 날개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세상에 긍정적인 자극이 되어 갑시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모든 학우 분들의 졸업을 축하하며, 마지막으로 못난 자식에게 이 한 순간을 선물하기 위해 당신들의 모든 낭만과 꿈을 희생하신 아버님과 어머님에게 이 순간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